

# 군산지역 일부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식행동 조사

## A study of Elementary Students' Satisfaction in School Food Service and Their Dietary Behaviors in Gunsan City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교수 장혜순\*  
지엠대우 보령공장  
지점장 박효정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Gunsan, Korea  
Professor : Hye-Soon Chang  
GM DAEWOO, Boryoung, Korea  
Branch Manager : Hyo-Jung Park

### Abstract

In this study, elementary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in school food service and their dietary behaviors were investigated, based on survey performed on 453 elementary school students (233 boy and 221 girl students) in the range of 4th grade to 6th grade. 85.7% of the students had agreed to the necessity of school food service. The point of overall satisfaction in school food service was  $3.53 \pm 0.83$ . The highest satisfactory factor was menu of school food service ( $3.64 \pm 0.77$ ), while the lowest satisfactory was service ( $3.41 \pm 0.85$ ). The point of boy students' satisfaction in menu ( $p < 0.05$ ), sanitation & facility ( $p < 0.001$ ), and service ( $p < 0.05$ ) of school food service was higher than girl students'. The students' responses indicate that: 36.9% of the students wash their hands before meal; 19.9% of the students brush their teeth after meal; 36.1% of the students arrange their table after meal; 22.1% of the students do not disturb others during their meal. 46.5% of the students always have meals pleasantly, while 22.8% of the students have meals without any particular feelings. 74.6% of the students always eat proper amount. 51.3% of the students turned out to eat snacks between meals out of hunger (50.7%) once a day with their friends (59.8%). 61.8% of the students believe that their tastes are affected by their parents and 57.8% of the students are aware of their unbalanced diet to be corrected. In summary, to provide satisfactory school food service for students, the improvements in the facilities and hygienic standard and the taste and nutrition have to be preceded, and the students have to be advised about the healthy dietary habits and the hazard of biased diet.

Key Words : elementary students, satisfaction, school food service, dietary behaviors

### 1. 서론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학교급식법 제 1조에 정의되어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8), 미래사회를 위한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달성한다는 장기적 목적에서 국가의 정책적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양일선 외, 2006). 현재 초등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된 급식환경에 맞추어 학교급식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새로이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과 만족도 제고로 교육복지 시책의 중심축으로 정착·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적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학교급식은 영양급식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성장기 학

\* Corresponding author: Hye Soon Chang  
Tel: 063) 469-4633, Fax: 063) 466-2085  
E-mail: hschang@kunsan.ac.kr

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 올바른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가진다(박희용, 1988).

학교급식의 장점과 효과를 분석한 연구(박명희 외, 2002)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신체발육 촉진, 건강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식품선택 능력의 증진, 편식교정, 식사예절과 태도의 변화, 식사와 관련된 위생관리 등의 식습관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급식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질적인 면의 만족도, 학교급식의 위생·시설 면에 대한 만족도, 영양교육의 필요성 등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여러 선행연구(곽동경 외, 2005; 김연주, 2000; 윤광현, 2007; 이민아 외, 2006; 장혁래, 김혜영B, 2005; 최혜연, 노정옥, 2007; 홍완수, 장혜자, 2003)에서 행하여졌다.

식행동은 어린 시절부터 주로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유전적인 영향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식행동은 성인기의 식습관을 형성하고 과거 세대의 식습관을 반영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식습관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유옥경 외, 2007).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학생들의 식행동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학교급식과 연계된 영양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행동을 길러주기 위한 자료로 여러 선행연구(김봉규, 2002; 박희용, 1988; 용희영, 2002; 장혜순, 김명자, 2006) 결과들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 국민 소득 증대와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른 편의주의 식생활로 인한 가공식품의 남용, 외식의 증가, 영양 과다 등의 잘못된 식행동의 형성과 운동부족으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식생활을 염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구복자, 이경애, 2000). 아동들의 불균형적인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영양지식의 전달이 아닌 실제 식생활에 영양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서은나, 김초강, 1998).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성,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점을 둘 분야, 학교급식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식행동 등을 조사하여 학교급식의 문제점 파악과 학생들의 만족도 증가를 위한 학교급식의 방향과 학생들의 식행동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올바른 식행동을 형성할 수 있는 영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군산시의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45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는 2006년 11월 20일~22일까지 군산시 초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위한 설문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자가 2006년 12월 12~15일까지 군산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초등학교생에게 직접 설명한 후 자가 기입 방식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 2. 조사 내용 및 방법

학교급식 만족도와 식행동 조사에 이용된 기존의 선행연구인 김봉규(2002), 김연주(2000), 김은신(2004), 김현주(2005), 이순용(2003), 장혜순, 김명자(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인용 또는 보완하여 학교급식 만족도와 식행동 관련 평가문항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성별, 학년, 가족 수, 어머니 직업으로 구성하여 빈도를 측정하였다.

#### 2) 학교급식의 만족도

학교급식 필요성과 이유,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로 구성하였다.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급식식단 11문항, 급식 서비스 5문항, 급식위생 및 시설 5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매우 불만족 한다'라고 대답한 것은 1점, '불만족 한다'는 2점, '그저 그렇다'는 3점, '만족 한다'는 4점, '매우 만족 한다'는 5점으로 평가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임을 나타내었다.

#### 3) 식행동 조사

학교급식에서의 식사태도는 식전 손 씻기, 식후 양치질, 식후 정리정돈, 식사 시 태도, 식사 시 마음가짐으로 구성하였다. 학교급식에서의 식생활 양상으로는 식사량, 잔반의 이유, 급식음식에 대한 반응, 음식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급식이 식행동에 미친 영향은

7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아주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은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저 그렇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아주 그렇다'는 5점으로 평가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급식이 개인의 식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나타내었다. 간식의 횟수·시기·섭취이유 및 함께 먹는 사람, 자신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신의 식행동 중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ver.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급식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급식의 식단, 서비스, 위생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급식이 학생의 식행동에 미친 영향은 남녀 학생집단 간의 점수 차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외의 식행동 조사는 남녀 학생들의 식행동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교차분석-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 45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은 233명으로 전체의 51.3%, 여학생은 221명으로 48.7%이다. 학년별 분포는 4학년과 5학년이 각각 35.9%와 35.7%이고 6학년 학생들이 28.4%이다. 가족 수는 4명이 64.3%로 가장 많았으며, 5명이 24.7%, 3명이 6.8%,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2/4분기의 평균 가족원 수인 3.36명과 유사하였고(통계청, 2007), 유옥경 외(2007)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가족 수가 4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 응답자 어머니의 직업유무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보여주듯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54.8%로 직업을 갖지 않은 어머니 45.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교진, 장미라(2008)의 원주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가 68.5%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유옥경 외(2007)의 초등학생 대상 연구결과와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비율 56.8%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기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Gender	Boys	233(51.3)
	Girls	221(48.7)
Grade	4th	163(35.9)
	5th	162(35.7)
	6th	129(28.4)
Number of family	3	31( 6.8)
	4	292(64.3)
	5	112(24.7)
	etc.	19( 4.2)
Mother's job	Yes	246(54.8)
	No	203(45.2)

우리나라 성별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15세 이상 여성의 50.7%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통계청, 2008).

### 2. 학교급식의 필요성, 만족도 및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 1) 학교급식의 필요성

학교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85.7%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이 필요하다고 답해주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87.6%, 여학생은 83.7%로 조사되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김현주(2005)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학교급식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체학생들 중 급식이 필요한 이유는 '부모님의 도시락 준비 수고를 덜어줄 수 있으므로' 41.6%, '다양한 음식을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으므로' 28.3%, '성장기 필요한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23.4%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님의 도시락 준비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라는 답이 많았다. 학교급식이 필요 없다고 답한 14.3%의 학생들의 학교급식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모두 '부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더 맛있어서'가 73.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학교급식의 만족도

식단·서비스·위생 및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식단(p<0.05), 서비스(p<0.05), 위생 및 시설(p<0.001)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

&lt;Table 2&gt; The reasons of necessity and unnecessity of school food service

N(%)

		Boys	Girls	Total	$\chi^2$
Necessity	Yes	204(87.6)	185(83.7)	398(85.7)	1.366 <sup>NS</sup>
	No	29(12.4)	36(16.3)	65(14.3)	
	Total	233(100)	221(100)	454(100)	
Reasons of necessity	Save parent's trouble of preparing the lunch box	77(37.7)	85(45.9)	162(41.6)	7.906*
	To eat the various food with friends	53(26.0)	57(30.8)	110(28.3)	
	For balanced diet of growth phase	57(27.9)	34(18.4)	91(23.4)	
	To eat the new foods	17( 8.3)	9( 4.9)	26( 6.7)	
	Total	204(100)	185(100)	389(100)	
Reasons of unnecessity	Food is delicious that prepared by parents	23(79.3)	25(69.4)	48(73.8)	1.547 <sup>NS</sup>
	Insanitary	2( 6.9)	6(16.7)	8(12.3)	
	Tasteless	2( 6.9)	3( 8.3)	5( 7.7)	
	Menu wasn't diverse	2( 6.8)	2( 5.6)	4( 6.1)	
Total		29(100)	36(100)	65(100)	

\*: p&lt;0.05

N.S: not significant.

&lt;Table 3&gt; The point of satisfaction for menu, service, sanitation &amp; facility of school food service

	Boys (n=233)	Girls (n=221)	Total (n=454)	t-value
Menu	3.73 ± 0.80 <sup>1)</sup>	3.55 ± 0.73	3.64 ± 0.77	2.398*
Service	3.50 ± 0.90	3.31 ± 0.78	3.41 ± 0.85	2.337*
Sanitation & facility	3.69 ± 0.88	3.39 ± 0.84	3.54 ± 0.87	3.685***
Total	3.64 ± 0.86	3.42 ± 0.78	3.53 ± 0.83	2.521*

1) Mean±SD

\*:p&lt;0.05 , \*\*\*:p&lt;0.001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식단이 3.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위생 및 시설 3.54점, 서비스 3.4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 군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은신(200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식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학교급식 운영에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① 식단에 대한 만족도

식단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4>와 같이 전체 평균이 3.64점이다. 11개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음식의 맛(3.80점), 음식의 온도(3.66점), 메뉴의 다양성(3.79점), 식단평가(3.72점), 반찬의 수(3.78점) 5개 문항이 전체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숙, 장명희(2005)의 강원 지역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음식의 맛, 메뉴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음식의 냄새(3.49점), 음식 모양의 조화(3.51점), 음식 색의 조화(3.50점), 밥의 양(3.63점), 국의 양(3.63점), 반찬의 양

(3.56점)은 전체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음식 색의 조화에서만 여학생(3.52점)이 남학생(3.48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나머지 10개의 문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전반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이는 김은신(2004)의 전북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특히 이 중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음식의 맛(p<0.01), 음식의 온도(p<0.01), 식단 평가(p<0.01), 밥의 양(p<0.001)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성 있게 높았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밥, 국, 반찬의 양 모두가 만족도의 평균이하 수치를 보여주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학교급식은 모든 어린이에게 알맞은 양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해야 하지만 사람의 눈대중으로 주다보니 정확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개선 방법으로 자율 배식대를 놓아 아이들의 자유로운 배식을 위해 조치하고 자율 배식대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영양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Table 4> The point of satisfaction for menu of school food service

	Boys (n=233)	Girls (n=221)	Total (n=454)	t-value
Taste of food	3.90 ± 0.93 <sup>1)</sup>	3.70 ± 0.88	3.80 ± 0.91	2.357*
Temperature of food	3.79 ± 1.02	3.51 ± 0.98	3.66 ± 1.01	3.006**
Flavor of food	3.56 ± 1.07	3.41 ± 1.00	3.49 ± 1.04	1.500 <sup>NS</sup>
Combination of food style	3.59 ± 1.12	3.43 ± 1.04	3.51 ± 1.09	1.540 <sup>NS</sup>
Combination of food color	3.48 ± 1.02	3.52 ± 0.99	3.50 ± 1.00	0.491 <sup>NS</sup>
Amount of rice	3.81 ± 1.17	3.45 ± 1.05	3.63 ± 1.13	3.455***
Amount of soup	3.72 ± 1.12	3.54 ± 0.99	3.63 ± 1.06	1.848 <sup>NS</sup>
Amount of side dishes	3.66 ± 1.19	3.46 ± 1.13	3.56 ± 1.16	1.860 <sup>NS</sup>
Diversity of side dishes	3.85 ± 1.16	3.72 ± 1.14	3.79 ± 1.15	1.252 <sup>NS</sup>
Number of side dishes	3.79 ± 1.09	3.77 ± 1.08	3.78 ± 1.08	0.212 <sup>NS</sup>
Assessment of menu	3.82 ± 1.05	3.60 ± 1.10	3.72 ± 1.08	2.169*
Total	3.73 ± 0.80	3.55 ± 0.73	3.64 ± 0.77	2.398*

1) Mean±SD

\*:p<0.05, \*\*:p<0.01, \*\*\*:p<0.001

N.S: not significant.

<Table 5> The point of satisfaction for service of school food service

	Boys (n=233)	Girls (n=221)	Total (n=454)	t-value
Dress of food service staffs	3.90 ± 0.99 <sup>1)</sup>	3.81 ± 0.99	3.86 ± 0.99	0.933 <sup>NS</sup>
Kindness of food service staffs	3.45 ± 1.32	3.00 ± 1.23	3.23 ± 1.29	3.766***
Food serving time	3.01 ± 1.31	3.01 ± 1.15	3.01 ± 1.23	-0.006 <sup>NS</sup>
Eating duration time	3.58 ± 1.24	3.44 ± 1.06	3.51 ± 1.16	1.218 <sup>NS</sup>
Cost of school lunch	3.55 ± 1.28	3.29 ± 1.10	3.42 ± 1.20	2.347*
Total	3.50 ± 0.90	3.31 ± 0.78	3.41 ± 0.85	2.337*

1) Mean±SD

\*:p<0.05, \*\*\*:p<0.001

N.S: not significant.

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5>와 같다. 5개의 각 문항에 대한 전체평균을 살펴보면 조리종사원의 복장(3.86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는 이화숙, 장명희(2005)의 강원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식사 소요시간(3.51점)과 급식비(3.42점)에서도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배식 시 기다리는 시간은 3.01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낮았고, 김은신(2004)의 전북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배식 시 기다리는 시간이 2.51점으로 평균 2.70점보다 크게 낮았다. 높은 좌석회전율과 촉박한 식사 소요시간으로 배식 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식당의 좌석 수 확보와 점심시간 연장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불만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성별 비교는 배식 시 기

다리는 시간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3.01점으로 차이가 없으며 나머지 4개 문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조리종사원의 친절함(p<0.001)과 급식비(p<0.05)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성 있게 만족도가 높았다.

③ 위생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위생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6>과 같으며 5개 항목의 전체평균을 살펴보면 실내인테리어(3.67점), 시설이용의 편리성(3.68점), 음식의 청결상태(3.60점)는 전체평균보다 높았으며, 식당의 청결상태와 식판의 청결상태는 낮게 나타나 시설에 대한 청결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식당과 식판은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 더욱 더 세심한 관리로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lt;Table 6&gt; The point of satisfaction for sanitation &amp; facility of school food service

	Boys (n=233)	Girls (n=221)	Total (n=454)	t-value
Interior design	3.77 ± 1.01	3.56 ± 1.03	3.67 ± 1.02	2.168*
Convenience of facility	3.85 ± 1.01	3.51 ± 1.05	3.68 ± 1.04	3.455***
Sanitation of food	3.73 ± 1.09	3.47 ± 1.07	3.60 ± 1.09	2.507*
Sanitation of dining room	3.59 ± 1.15	3.25 ± 1.08	3.43 ± 1.13	3.195***
Sanitation of spoon & plate	3.51 ± 1.25 <sup>1)</sup>	3.15 ± 1.14	3.33 ± 1.21	3.204***
Total	3.69 ± 0.88	3.39 ± 0.84	3.54 ± 0.87	3.685***

1) Mean±SD

\*:p&lt;0.05, \*\*\*:p&lt;0.001

다. 또한 시설의 청결상태의 불만은 위생문제를 야기 시켜 단체 식중독을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시설에 대한 청결상태는 만족도가 높게 유지되도록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이다. 성별 비교에서 실내인테리어(p<0.05), 시설이용의 편리성(p<0.001), 음식의 청결상태(p<0.05), 식당의 청결상태(p<0.001) 식판의 청결상태(p<0.001)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성 있게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김은신(2004)의 전북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2.86점으로 여학생 2.74점보다 높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완수, 장혜자(2003)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3.30점으로 여학생 3.18점 보다 높은 것과 같은 결과로 남학생의 위생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여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 3)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위생상태가 55.5%로 가장 높았고, 이는 김은신(2004)의 전북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개 항목 중 가장 높은 28.6%가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 다음으로 균형적인 영양과 음식의 맛이 각각 15.5%와 15.0%로 거의 비슷하고, 식단의 다양성과 음식의

양은 7.0%로 낮게 나타났으며 남녀 간의 응답차이는 없었다. 이화숙, 장명희(2005)의 강원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급식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음식의 맛, 위생 상태에 대한 불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위생상태가 좋으려면 급식시설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 3. 식행동 조사

### 1) 학교급식에 대한 식사태도

학교급식에 대한 식사태도는 <Table 8>과 같다. 식사 전 손을 씻는가에 대한 물음에 34.8%의 남학생과 39.3%의 여학생이 '매일 씻는다'로 답해 주었고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한 용희영(2002)의 연구결과에서 55.0%의 학생이 꼭 씻는다고 답한 것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손 씻기가 질병예방에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77.6%의 학생들이 매일 씻거나 자주 씻는다고 답하였지만 식사하기 전에는 언제나 손을 씻어 병균이 구강을 통한 침입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영양교육을 통해 모든

&lt;Table 7&gt; The field of school food service which takes the best important point

N(%)

	Boys	Girls	Total	χ <sup>2</sup>
Sanitation	115(50.7)	129(60.6)	244(55.5)	6.676 <sup>NS</sup>
Balanced nutrition	39(17.2)	29(13.6)	68(15.5)	
Taste of food	40(17.6)	26(12.2)	66(15.0)	
Diversity of menu	14( 6.2)	17( 8.0)	31( 7.0)	
Amount of food	19( 8.4)	12( 5.6)	31( 7.0)	
Total	227(100)	213(100)	440(100)	

N.S: not significant.

<Table 8> Dietary attitude of the subjects

N(%)

		Boys	Girls	Total	$\chi^2$
Washing hands before eating	Everyday	81(34.8)	86(39.3)	167(36.9)	4.012 <sup>NS</sup>
	Very often	102(43.8)	82(37.4)	184(40.7)	
	Occasionally	46(19.7)	50(22.8)	96(21.2)	
	No	4( 1.7)	1( 0.5)	5( 1.1)	
Brushing the teeth after eating	Everyday	41(17.6)	49(22.4)	90(19.9)	4.191 <sup>NS</sup>
	Very often	103(44.2)	84(38.4)	187(41.4)	
	Occasionally	49(21.0)	55(25.1)	104(23.0)	
	No	40(17.2)	31(14.2)	71(15.7)	
Arrangement after eating	Everyday	81(34.8)	82(37.4)	163(36.1)	2.409 <sup>NS</sup>
	Often	109(46.8)	108(49.3)	217(48.0)	
	If make me arrange	24(10.3)	17( 7.8)	41( 9.1)	
	No	19( 8.2)	12( 5.5)	31( 6.9)	
Attitude at table on eating	With talking	134(57.5)	151(68.9)	285(63.1)	7.960*
	With keeping quiet	57(24.5)	43(19.6)	100(22.1)	
	With watching TV or reading a book	30(12.9)	21( 9.6)	51(11.3)	
	With going around	12( 5.2)	4( 1.8)	16( 3.5)	
Mental attitude on eating	Always pleasantly	106(45.5)	104(47.5)	210(46.5)	8.24*
	Without any particular feeling	44(18.9)	59(26.9)	103(22.8)	
	With thinking about nutrition & health	41(17.6)	33(15.1)	74(16.4)	
	Due to hunger	42(18.0)	23(10.5)	65(14.4)	
Total		233(100)	219(100)	452(100)	

\*:p<0.05

N.S: not significant.

학생이 식사 전 손 씻는 것을 일상화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겠고, 또한 식당에 들어와 식전에 반드시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손소독기 시설확충이 필수적이다.

식사 후 양치질 여부에 대한 물음에 '매일 한다'는 남녀 각각 17.6%와 22.4%의 수치를 보여 매우 적은 수의 학생들만 매일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자주 한다'는 답변은 평균 41.4%이었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학생도 평균 1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순용(2003)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초등학교생들의 학교급식 후 양치질 습관을 길러 주는 영양교육의 실시와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양치질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후 정리정돈에 대한 물음에 '가끔 치운다'는 의견이 남녀 각각 46.8%와 49.3%로 가장 높았으며 '매일 치운다'는 남녀 각각 34.8%와 37.4%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사 후 본인의 자리를 정리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키면 치운다'와 '치우지 않는다'는 9.1%와 6.9%로 낮게 나타났다. 남녀 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식사 시 태도는 '대화하며 식사한다'가 남녀 각각

57.5%와 68.9%로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식사 중 돌아다니기도 한다'는 남녀 각각 5.2%와 1.8%로 낮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아 남녀 간의 식사 시 태도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5).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용희영(2002)의 연구결과는 '조용히 앉아서 식사 한다'가 71.8%로 가장 높게 나와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식사 시 마음가짐은 '항상 즐겁게'라는 의견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별 생각 없이 먹는다'는 22.8%, '영양과 건강을 생각'은 16.4%, '배고파서'가 14.4%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사 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식사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용희영(2002), 이순용(2003)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많은 초등학교생들이 식사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별 생각 없이 먹는다'가 여학생이 26.9%로 남학생 19.0%보다 높았으며, '배고파서 먹는다'는 남학생이 18.0%로 여학생의 10.5%보다 높게 나타나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용희영(2002)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와

같이 남녀 간의 식사 시 마음가짐에는 차이가 있었다.

## 2) 학교급식의 식생활 양상

식생활 양상에 대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식사량에 대한 물음에 '항상 적당한 양'이 남녀 각각 70.0%와 79.5%로 가장 높아 대부분 학생들의 식사량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희영(2002)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녀 각각 68.0%와 76.3%로 나타났으며, 충남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장혜순, 김명자(2006)의 연구결과도 같았다. 남녀 간 식사량의 차이는 '항상 많이 먹는다'가 남학생이 5.6%로 여학생의 1.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대전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정희(2000)연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용희영(2002), 이선이(2001)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식 및 폭식 경향이 많다고 보고 하였다.

잔반의 원인에 대한 물음에 '음식의 맛이 싫어서'라는 의견이 남녀 각각 33.9%와 50%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북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김은신(2004) 연구와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용희영(2002)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섭취가 늘어나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 화학조미료 등의 맛에 길들여져 학교급식이 상대적으로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녀 간의 차이는 '안 먹어본 음식이어서'란 답이 남학생은 25.0%, 여학생은 7.7%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 $p<0.05$ ).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새로운 음식섭취를 더 힘들어하므로 남학생에 대한 이 부분의 영양교육이 더욱 요구된다.

급식 시 좋아하는 음식이 나올 때의 반응에 대한 답은 '적당량만 먹는다'로 남녀 각각 60.9%와 73.6%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용희영(2002)의 연구에서도 남녀 각각 31.5%와 51.9%로 나타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식사량에 알맞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배가 부르더라고 다 먹는다', '다 먹고도 더 달라고 한다'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남녀 간 반응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5$ ),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용희영(2002)의 연구결과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

<Table 9> An aspect for dietary behavior of the subjects

		Boys	Girls	Total	N(%)
Amount of meal	Much	13( 5.6)	4( 1.8)	17( 3.8)	7.311 <sup>NS</sup>
	Much when delicious food supplied	35(15.0)	25(11.4)	60(13.2)	
	Proper amount	163(70.0)	175(79.5)	338(74.6)	
	Small	22( 9.4)	16( 7.3)	38( 8.4)	
Reason of plate waste	Dislike the taste	79(33.9)	110(50.0)	189(41.7)	12.839 <sup>*</sup>
	Eat full	65(27.9)	45(20.5)	110(24.3)	
	Amount of food is too much	52(22.3)	39(17.7)	91(20.1)	
	Food that have no experience to eat	10(25.0)	17( 7.7)	42( 9.3)	
	Difficult to digestive	12( 5.2)	9( 4.1)	21( 4.6)	
Response for favorite foods	Talk to give more	57(24.5)	35(15.9)	92(20.3)	8.333 <sup>*</sup>
	Eat all even stomach is full	34(14.6)	23(10.5)	57(12.6)	
	Eat proper amount	142(60.9)	162(73.6)	304(67.1)	
Response for abominable foods	Only just try	50(21.5)	78(35.5)	128(28.3)	16.883 <sup>***</sup>
	Not eat even receiving foods	49(21.0)	57(25.9)	106(23.4)	
	Eat by effort for health	77(33.0)	52(23.6)	129(28.5)	
	Not receive from the beginning	57(24.5)	33(15.0)	90(19.9)	
Consideration facts when select the food	Taste	147(63.1)	133(60.5)	280(61.8)	1.388 <sup>NS</sup>
	Nutrition	72(30.9)	72(32.7)	144(31.8)	
	Smell	11( 4.8)	11( 5.0)	22( 4.8)	
	Appearance	3( 1.3)	4( 1.8)	7( 1.5)	
Total		233(100)	217(100)	453(100)	

\*:  $p<0.05$ , \*\*\*:  $p<0.001$

N.S: not significant.



하였다( $p<0.01$ ). 급식 시 싫어하는 음식이 나올 때의 반응에 대한 물음에 남학생은 '건강을 위해 먹으려고 노력한다'가 33.0%, 다음으로 '처음부터 받지 않는다', '맛만 본다', '받아도 먹지 않는다'로 나타나 박종임·구난숙(1998)의 대전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학생은 '맛만 본다'가 35.5%, '받아도 먹지 않는다', '건강을 위해 먹으려고 노력한다', '처음부터 받지 않는다'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있었다( $p<0.001$ ).

음식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맛있는 것'이 각각 63.1%와 60.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영양성분이 높은 것'이 평균 31.8% 이었고, 그 외 색깔이나 냄새, 모양의 항목은 모두 4%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보이며 남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용희영(2002), 이순용(2003)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맛이며 그 다음이 영양임을 알 수 있었다.

### 3) 학교급식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식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학교급식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총 7항목의 평균은 3.41점이었고, 남녀 각각 3.48점과 3.33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급식에 의하여 식행동 변화점수가 다소 높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다' 3.53점,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게 되었다' 3.48점,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되었다' 3.47점, '맛이 없거나 처음 보는 음식도 먹어보게 되었다' 3.47점, 총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김무환, 이경

애(2003)의 연구에서도 학교급식은 식사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다는 학생들이 67.3%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바른 식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행하여진다면 좀 더 나은 식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되었다'와 '맛이 없거나 처음 보는 음식도 먹어보게 되었다'는 학교급식이 여러 음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용인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장혁래, 김혜영B(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학교급식이 편식습관을 고치는 바람직한 경우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식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7항목 중 평균보다 낮은 점수의 항목은 '집에서도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게 되었다' 3.36점, '식사 후 내가 먹은 자리는 스스로 치우게 되었다' 3.30점, '음식을 먹을 때 소리 내지 않고 바르게 앉아 먹게 되었다' 3.25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5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 이상의 결과를 보여 학교급식이 개인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순용(2003), 장혁래, 김혜영B(2005)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식후 자리정돈과 바른 자세로 식사하는 것은 학교급식을 통하여 크게 강조되지 않은 항목이기에 영향력이 적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음식에 대한 영양교육과 더불어 식사 시 올바른 태도와 식후 자리정돈도 영양교육 내용에 같은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녀 간의 차이는 '맛이 없거나 처음 보는 음식도 먹어보게 되었다'( $p<0.05$ )가 남녀 각각 3.56점과 3.39점, '집에서도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게 되었다'( $p<0.01$ )가 남녀 각

<Table 10> The effect of school food service on dietary behavior

	Boys (n=233)	Girls (n=221)	Total (n=454)	t-value
I eat with sense of gratitude	3.57 ± 1.19	3.49 ± 1.12	3.53 ± 1.16	0.735 <sup>NS</sup>
I don't try to remain the food	3.56 ± 1.19	3.39 ± 1.17	3.48 ± 1.18	1.560 <sup>NS</sup>
I try to eat the tasteless food and new food	3.50 ± 1.20 <sup>1)</sup>	3.43 ± 1.17	3.47 ± 1.19	0.580 <sup>NS</sup>
I try to eat well-balanced meal at school	3.58 ± 1.24	3.34 ± 1.21	3.47 ± 1.23	2.025*
I eat without sound to chew and right posture	3.51 ± 1.26	3.20 ± 1.23	3.36 ± 1.25	2.581**
I eat well-balanced meal at home	3.37 ± 1.32	3.23 ± 1.25	3.30 ± 1.28	1.137 <sup>NS</sup>
I arrange the table after meal	3.28 ± 1.23	3.22 ± 1.22	3.25 ± 1.22	0.494
Total	3.48 ± 0.96	3.33 ± 0.90	3.41 ± 0.93	1.743 <sup>NS</sup>

1) Mean± SD

\*:  $p<0.05$ , \*\*:  $p<0.01$

N.S: not significant.

각 3.51점과 3.20점으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급식에 의한 식행동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나머지 5문항도 남녀 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모든 항목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급식에 의한 식행동 변화를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간식

간식하는 습관에 대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간식 횟수는 '하루 1회'가 남녀 각각 48.1%와 54.8%로 가장 많은 답을 하여 전주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유옥경 외(2007),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순용(2003)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혀 먹지 않는다'는 남녀 각각 24.5%와 11.3%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일일 간식 횟수가 낮았고( $p<0.01$ ),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용희영(2002)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20.3%로 여학생의 12.3%보다 간식을 먹지 않는 비율이 높아 남학생의 간식횟수가 여학생에 비하여 낮았다( $p<0.01$ ). 하점순, 이효지(1995)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간식을 더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하는 시기는 '점

심과 저녁식사 사이'가 남녀 각각 49.1%와 54.9%로 가장 높았고 이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용희영(2002)의 연구에서도 남녀 각각 48.5%와 47.0%로 같은 결과를 보이며,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는 34.3%, '아침과 점심식사 사이'가 6.8%, '저녁식사 후'가 6.8%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심과 저녁식사 사이에 군것질을 하였으며 남녀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하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남녀 각각 53.8%와 47.9%로 가장 높았으며 '아무 생각 없이' 25.9%, '습관이 되어서' 12.5%, '친구 따라서' 10.9%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가 고파서 군것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간에 차이는 없었다. 간식을 먹을 때 주로 함께하는 사람은 '친구'가 남녀 각각 53.1%와 65.8%로 가장 높았으며 '혼자'와 '부모님'이 각각 30.2%와 10.1%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친구와 간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 교실 안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남녀 간의 차이는 '주로 혼자 먹는데'가 남학생이 38.9%로 여학생 22.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다( $p<0.01$ ). 학생들의 간식섭취는 심리적 만족감과 더불어 식사만으로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간식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에 대한 학교의 영양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able 11> The frequency, time, reason of eating snack and the person who eat together for eating snacks N(%)

	Boys	Girls	Total	$\chi^2$	
Frequency	None	57(24.5)	25(11.3)	82(18.1)	13.511**
	1 Time/day	112(48.1)	121(54.8)	233(51.3)	
	2-3 Times/day	56(24.0)	67(30.3)	123(27.1)	
	4 Times/day	8( 3.4)	8( 3.6)	16( 3.5)	
	Total	233(100)	221(100)	454(100)	
Time	Between breakfast and lunch	13( 7.4)	12( 6.2)	25( 6.8)	2.448 <sup>NS</sup>
	Between lunch and dinner	86(49.1)	107(54.9)	193(52.2)	
	After dinner	15( 8.6)	10( 5.1)	25( 6.8)	
	Whenever I want to eat	61(34.9)	66(33.8)	127(34.3)	
	Total	175(100)	195(100)	370(100)	
Reasons	To relief from hunger	93(53.8)	93(47.9)	186(50.7)	7.019 <sup>NS</sup>
	Without thinking	47(27.2)	48(24.7)	95(25.9)	
	Run after friends	11( 6.4)	29(14.9)	40(10.9)	
	Habitually	22(12.7)	24(12.4)	46(12.5)	
	Total	173(100)	194(100)	367(100)	
Person who eat together	Friends	93(53.1)	127(65.8)	220(59.8)	12.223**
	Alone	68(38.9)	43(22.3)	111(30.2)	
	Parents	14( 8.0)	23(11.9)	37(10.1)	
	Total	175(100)	193(100)	368(100)	

\*\*: $p<0.01$

N.S: not significant.

5)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개선이 필요한 점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개선이 필요한 점은 <Table 12>와 같다. 자신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정의 부모님' 이 남녀 각각 54.3%와 69.7%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김현주(2005), 대전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정희(2000),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장혁래, 김혜영B(2005)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가족은 동일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므로 가족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생활 태도를 가지게 되어 학부모의 식행동과 학생의 식행동이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지도'가 남녀 각각 13.8%와 9.2%로 나타났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지영, 이심열(2002)은 영양교육은 학령기에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였으며 영양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식생활 태도 및 식행동이 좋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지도와 더불어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이 병행된다면 더욱 더 바람직한 식태도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래친구의 영향은 남녀 각각 13.8%와 7.3%, 대중매체의 영향은 남녀 각각 8.6%와 5.0%로 조사되었으며 남녀 간에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0.05$ ). 학령기 초등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부모님에 의한 지도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바른 식행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 대한 영양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자신의 식행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남녀 각각 '편식'이 55.6%와 58.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불규칙한 식사시간', '많은 식사량', 'жат은 결

식'의 순으로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식행동에 대한 개선점으로 '편식'을 꼽을 만큼 우리나라 학교 급식대상자인 초·중·고등학생의 편식에 의한 영양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고 이는 선행연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김현주(2005)의 결과와도 같으며, 장혜순, 김명자(2006)의 충남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편식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편식이 나쁜 습관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성, 만족도 및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와 식행동을 남녀 학생 간의 차이점을 고찰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학교급식을 행하고, 학교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행동을 형성할 수 있는 영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2006년 전라북도 군산시 초등학교 4, 5, 6학년 454명(남자 233명, 여자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의 필요성은 조사대상자의 85.7%(남학생 87.6%, 여학생 83.7%)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급식이 필요한 이유는 '부모님의 도시락 준비의 수고를 덜기위하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학교급식의 전반적 만족도 조사에서는 식단, 위생 및 시설, 서비스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남학생이 식단 ( $p<0.05$ ), 위생 및 시설( $p<0.001$ ), 서비스( $p<0.05$ ) 모든 항

<Table 12> The factors that is needed to influence and improve dietary behavior N(%)

	Boys	Girls	Total	$\chi^2$	
Influence factors	Parents	126(54.3)	152(69.7)	278(61.8)	12.944*
	School	32(13.8)	20( 9.2)	52(11.6)	
	Disease	22( 9.5)	19( 8.7)	41( 9.1)	
	Friends	32(13.8)	16( 7.3)	48(10.7)	
	TV, radio, magazine	20( 8.6)	11( 5.0)	31( 6.9)	
	Total	232(100)	218(100)	450(100)	
Improvement factors	Unbalanced diet	129(55.6)	128(58.4)	257(57.0)	1.141NS
	Irregular mealtimes	31(13.4)	29(13.2)	60(13.3)	
	Over eating	22( 9.5)	15( 6.8)	37( 8.2)	
	Skipping meal	11( 4.7)	11( 5.0)	22( 4.9)	
	None	39(16.8)	36(16.4)	75(16.6)	
Total	232(100)	219(100)	451(100)		

\*: $p<0.05$

N.S: not significant.

목에서 여학생보다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식단에 대한 만족도 중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음식의 맛( $p<0.05$ ), 음식의 온도( $p<0.05$ ), 밥의 양( $p<0.05$ ), 식단평가( $p<0.05$ )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중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조리종사원의 친절함( $p<0.001$ ), 급식비( $p<0.05$ )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위생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중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실내 인테리어( $p<0.05$ ), 시설 이용의 편리성( $p<0.001$ ), 음식의 청결상태( $p<0.05$ ), 식당의 청결상태( $p<0.001$ ), 식판의 청결상태( $p<0.001$ )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높았다.

3)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위생상태 55.5%, 균형적인 영양 15.5%, 음식의 맛 15.0%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위생상태(여학생 60.6%, 남학생 50.7%)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균형적인 영양(남학생 17.2%, 여학생 13.6%)과 음식의 맛(남학생 17.6%, 여학생 12.2%)을 더 높은 비율로 답하였다.

4) 학교급식에서의 식사 태도는 36.9%가 매일 식사 전 손을 씻으며, 19.9%가 식사 후 매일 양치질을 하였고, 식사 후 36.1%만이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며, 22.1%만이 식사 시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하였고, 식사 시 46.5%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였다. 남녀 간의 식사태도의 차이는 식사 시 태도( $p<0.05$ )와 식사 시 마음가짐( $p<0.05$ )으로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식사 시 대화하는 비율이 높았고, 기쁜 마음으로 식사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5) 학교급식에서의 식생활 양상에서 식사량은 74.6%는 항상 적당량만 먹으며, 잔반의 주된 이유는 41.7%가 '음식의 맛이 없어서'로 답하였고, 남녀 간의 차이는 여학생은 '맛이 없어서'가 남학생보다 높았고, 남학생은 '먹어본 경험 없이'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5$ ). 음식을 선택할 때 61.8%가 '맛이 있는 것' 위주로 선택한다고 하였고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식행동에 미친 영향은 학생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하게 되었으며 잔반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고, 먹어보지 않은 음식도 골고루 먹도록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학교급식에서 받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7) 간식의 횟수는 51.3%의 학생이 하루 1회였고, 점심과 저녁식사 사이 주로 간식을 하며, 간식을 하는 이유는 50.7%가 배가 고파서였고, 59.8%가 친구와 같이 간식을 한다고 하였다. 간식의 횟수( $p<0.01$ )와 간식을 함께 먹는 사람( $p<0.01$ )은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간식을 하지 않는 비율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고, 간식을 친구와 같이 먹는 비율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8) 자신의 식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61.8%가 가정의 부모님이라 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율이 높았다( $p<0.05$ ). 자신의 식행동 중 개선이 필요한 점은 57.8%가 편식이었고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

학교급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남학생보다 만족도가 낮은 여학생의 기호에 맞는 음식의 맛과 식단을 개발하고, 시설에도 여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위생 상태를 생각하므로 위생 및 시설상태의 관리를 학교급식 관리에서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행동 중 개선이 필요한 식행동으로 편식이 나타났고, 간식은 친구와 같이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바른 간식의 선택과 편식을 교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영양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으며, 학교는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 등의 자료연구와 개발에 힘써야 하겠다.

그러므로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급식을 통하여 아동이 올바른 식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단개발과 영양교육이 요구되며, 위생 및 시설 관리에 학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초등학교, 만족도, 학교급식, 식행동

## 참 고 문 헌

- 곽동경, 장혜자, 송지영(2005) 균형성과표(BSC)개념을 적용한 학교급식 운영성과 측정지표 개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0(6), 905-919.
- 교육과학기술부(2008) 개정학교급식 법령(2008. 3. 21 일부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2006)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2007~2011).
- 구복자, 이경애(2000) 초등학생의 영양교육을 위한 식습관 및 영양지식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5(3), 201-213.
- 김무환, 이경애(2003) 학교급식이 초등학생의 식행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인식비교.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2(4), 636-644.
- 김봉규(2002) 초등학생의 식습관과 학교급식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연주(2000) 학교급식을 통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식품기호, 식습관 및 식생활 태도의 비교.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신(2004) 중학생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메뉴 선호도조사연구 -전라북도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5) 초등학교 급식의 만족도 및 기호도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교진, 장미라(2008) 원주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14(1), 13-22.
- 박명희, 최영선, 김연주(2002) 동일지역 초·중등학생의 식생활태도와 학교급식에 대한 태도비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7(1), 3-13.
- 박종임, 구난숙(1998) 대전지역 급식학교 초등학생들의 식습관 조사.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4(2), 113~122.
- 박희용(1988) 학교급식 효과와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은나, 김초강(1998) 초등학교 영양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시내 일부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영양학회지, 31(4), 787-798.
- 서정희(2000) 대전지역 일부청소년의 영양지식, 식태도, 식행동 간의 관련성.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일선, 이보숙, 이소정, 이해영, 정현영(2006) 학교급식의 우리농산물 이용실태 및 이에 대한 영양사의 인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1(2), 142-153.
- 윙희영(2002) 초등학교급식에 대한 분석과 아동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기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옥경, 박수희, 차연수(2007) 전주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남·여 학생의 식습관 및 식행동, 영양지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2(6), 665-672.
- 윤광현(2007) 초등학생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기호도 조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아, 양일선, 이보숙, 김현아, 박소현(2006) 계층적 분석 과정을 이용한 학교급식 운영 품질평가분야의 중요도 분석. 한국영양학회지, 39(1), 74-83
- 이선이(2001) 광주지역 초등학교 아동들의 식습관 및 식품 기호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학학회지, 4(1), 46~61.
- 이순용(2003) 초등학생의 식습관과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학위논문.
- 이지영, 이심열(2003) 영양교육 실시교와 미실시교 초등학생들의 영양지식, 식행동 및 영양소 섭취상태 비교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춘·추계학술대회지, 107.
- 이화숙, 장명희(2005) 강원도 지역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18(3), 175-191.
- 장혁래, 김혜영B(2005) 용인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8(2), 155-160
- 장혜순, 김명자(2006) 학교급식 유형·성별 및 학년에 따른 충남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식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1(5), 608-617.
- 최혜연, 노정옥(2007) 전북지역 급식영양사의 학교급식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0(2), 218-225.
- 홍완수, 장혜자(2003) 초등학생의 학교급식 만족도와 잔식의 관계 분석.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19(3), 390-395.
- 하점순, 이효지(1995) 중학생의 식행동이 건강상태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3), 225~242.
- 통계청(2008) 한국의 성별경제활동인구.
- 통계청(2007) 한국의 평균가족원수.

(2008. 12. 22 접수; 2009. 3. 12 채택)